

# 晚唐 趙嘏의 과거시에 나타난 갈망과 회한

배다니엘\*

## 目 录

- I. 서론
- II. 趙嘏의 과거시에 나타난 갈망과 회한
  1. 干謁詩 창작을 통한 관직에의 갈망
  2. 落第詩에 담은 비애감과 회한
- III. 결어

## 1. 서론

趙嘏(806?-853?)는 字가 承佑이고 楚州 山陽(현 江蘇 淮安)인으로 憲宗 元和 元年(806)년 경에 태어났다. 청년기에 사방을 유람한 바 있으며 大和 7年(833)에 進士科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였다. 낙방한 뒤 長安에 머물며 과거를 준비하거나 여러 막부를 전전하며 幕吏를 보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 長安과 幕府를 오가는 동안 여러 관료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干謁을 하는 등 관직에 오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다. 江東으로 돌아가 潤州(현 鎮江)에 기거하다 武宗 會昌 3년(843)에 치른 과거에서 다시 낙방했는데 결국 이듬해 進士에 급제하게 된다. 會昌 末에서 大中 初에 이르는 기간 동안 渭南尉를 맡았다가 宣宗 大中 6,7년(852-853) 경에 임지에서 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저서로 『渭南集』이 있고 『全唐詩』 권549와 권560에 259수의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학과 중국지역 전공 교수.

1) 趙嘏에 관하여 『新唐書』, 『舊唐書』 등에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五代 王定保 『唐摭言』 권15, 元代 辛文房, 『唐才子傳』 권7 등을 통해 생평과 행적을 살필 수 있으며 『北

시가가 남아 있다.

趙嘏는 晚唐의 여러 문인 중 위상이 높은 시인은 아니지만 趙嘏에 대한 역대 문헌에서의 평가는 비교적 호평이 많은 셈이다. 唐代 張爲가 『詩人主客圖序』에서 趙嘏를 ‘瑰奇美麗門’ 중 劉禹錫 뒤의 ‘入室’에 편입시켜 놓은 것<sup>2)</sup>을 필두로 元代 辛文房, 明代 胡震亨, 清代 杜詔·杜庭珠, 清代 孫濤, 清代 翁方綱 등이 趙嘏에 대해 호평을 남기고 있는데<sup>3)</sup> 그 내용은 趙嘏 시의 맑고 그윽한 풍격이나 칠언시에 대한 칭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趙嘏 시가를 살펴 보면 강호를 유리하며 목도한 자연을 묘사하거나 우수에 찬 심정을 묘사한 작품이 많은 편이라 ‘맑고 그윽한 풍격(淸迥)’이라는 것대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의 기저에 세상에서 得意하지 못한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괴감을 투영한 부분이 많음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거나 관직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 따른 비애감과 근

夢瑣言』 권7 및 『唐詩紀事』 권56 등을 통해 단편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 2) 張爲 『詩人主客圖序』: “대략 主人 門下에 객이 된 이를 넣는 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삼는다. …… 武元衡을 ‘瑰奇美麗主’로 놓으면 ‘上入室’에 劉禹錫, ‘入室’에 趙嘏, 長孫佐輔 등을 넣을 수 있다.(若主人門下處其客者, 以法度一則也. …… 以武元衡爲瑰奇美麗主. 上入室, 劉禹錫; 入室, 趙嘏, 長孫佐輔.)” 기록 참조.
- 3) 元代 辛文房은 『唐才子傳』 卷7에서 “趙嘏는 서생으로서 원근 각지에 이름을 중히 알렸으니 ‘경사에서 이름을 날린 후 사흘이면 천하에 전해졌다’는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能以書生, 令遠近知重, 所謂‘一日名動京師, 三日傳滿天下’, 有自來矣.)”라고 칭찬했고, 明代 胡震亨은 『唐音癸籤』 권8에서 “渭南衛 趙嘏는 재주와 필력이 거칠 것이 없어 오언시는 많지 않았지만 칠언시는 의경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趙渭南嘏才筆欲橫, 故五字卽窘, 而七字能拓.)”라고 그의 재주가 ‘縱橫’함을 칭찬한 바 있으며, 清代 杜詔와 杜庭珠는 『中晚唐詩叩彈集』 중에 趙嘏의 시를 37수 선록해 놓고 “그의 시는 담백하고 아름답다워 흥미를 많이 일으킨다.(爲詩瞻美, 多興味.)”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밖에 清代 孫濤는 『全唐詩話續編』 卷上에서 “趙嘏는 시명이 컸었는데 작은 마디에 구애됨이 없었다.(嘏頗有詩名, 不拘小節.)”라는 평을 하였고, 清代 翁方綱은 『石洲詩話』 권2에서 許渾의 시를 평하면서 “(許渾의) 五律은 杜牧의 아래에 있고 溫岐의 위에 있다. 고로 이를 통해 시문을 꾸미는 것과는 상관없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칠언율시 역시 溫岐보다 맑고 그윽한데 趙嘏의 五七言 律詩 또한 맑고 그윽하여 許渾의 오언율시와 견줄 만하다.(許渾) 五律, 在杜牧之下, 溫岐之上. 固知此事不盡關塗澤也. 七律亦較溫清迥矣. 趙嘏五七律, 亦皆淸迥, 許之匹也.)”라고 칭찬을 가한 바 있다.

원을 같이 부분이 많은 편이다.

趙嘏는 憲宗으로부터 宣宗에 이르는 여섯 조대를 살면서 활동했는데 이 시기는 唐帝國이 누렸던 과거의 영화가 이미 희미해져 있던 시기이며 內憂外患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다. 조정에서는 환관이 전권을 행하고 황제의 권위가 미약해져 갔으며 관료집단은 四分五裂된 데다가 牛僧孺와 李德裕를 영수로 하는 ‘牛李黨爭’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藩鎮의 할거 또한 시국을 어지럽게 만드는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년 간 과거에 응시하고 낙방을 경험했던 趙嘏의 이력은 晚唐의 다른 문인들이 겪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직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느끼는 좌절감은 晚唐 문인들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나 관직에 대한 열망과 상대적인 박탈감의 크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요컨대 시인마다 다른 주안점을 갖고 창작에 임했던 만큼 관직을 추구하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시가를 창작했는가는 주목해볼만한 문제라 할 수 있다.

趙嘏는 시대 속에서 고뇌하거나 천하를 유리하는 자신의 처지를 여러 편의 시가를 통해 밝히고 있다. 259편에 달하는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득의하지 못한 심경의 토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애감은 주로 과거응시나 관직추구, 낙방으로 인한 좌절감 등의 이력과 연관된 바가 크다. 따라서 趙嘏 시가의 전모와 개인의 내면을 밝히기 위한 작품읽기로 그의 ‘科擧詩’<sup>4)</sup> 분석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趙嘏의 科擧詩는 한 문

4) 본 논문에서 말하는 ‘科擧詩’는 과거를 향한 의지와 노력, 과거 응시 전후 심경, 과거 결과에 따라 느낀 각종 감정 등을 표현한 작품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이다. ‘科擧詩’에는 과거를 준비하는 심정이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시가 뿐 아니라 干調詩, 落第詩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張浩遜은 「唐代科擧詩論略」, 《鐵道師院學報》, 제15권, 1998.에서 과거시의 종류에 대해 과거에 입하는 의지를 쓴 ‘赴擧自述詩’, 등과한 소회를 밝힌 ‘登科抒懷詩’, 낙제 후의 심경을 담은 ‘下第志感詩’, 과거를 위해 떠나는 다른 이를 송별하며 쓴 ‘送人赴擧詩’, 타인의 급제를 축하하는 ‘賀人及第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다양한 시가 중 趙嘏가 과거와 관련하여 干調詩와 落第詩를 특히 많이 지었음에 주목하여 干調詩, 落第詩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이 일생을 살아가며 가장 크게 추구했던 열정의 기록이며 동시대를 살아갔던 문인들의 삶을 엿보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晚唐의 趙嘏가 지냈던 관직에의 열망과 과거에서의 좌절감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 작업을 통해 趙嘏 시 창작의 기반을 이루는 의식 세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Ⅲ. 趙嘏의 과거시에 나타난 갈망과 회한

唐初에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秀才, 明經, 進士의 세 과가 있었다. 晚唐 穆宗 長慶 시대로 내려오면서 俊士, 明法, 明算, 一史, 三史, 開元禮 등 무려 14개까지 생겨나게 되었으나 전통적으로 중요시 되던 것은 詩賦를 통해 선발하는 進士科였다.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재가 부족했던 唐初에 실시했던 ‘徵辟’, 幕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관리가 되기 위해 藩鎮으로 들어가는 ‘入幕’, 자신의 文才를 실은 시문을 고위직 인물에게 올려 추천을 받는 ‘薦舉’ 등이 있었고, 그밖에 과거를 보기 전 干謁의 방식으로 시문을 특정인에게 올려 선발에 유리하도록 하는 ‘行卷’ 등의 방식이 있었다. 趙嘏의 干謁詩를 보면 여러 방식 중에서도 막부의 관료들을 대상으로 ‘薦舉’를 원하거나 ‘入幕’을 추구했던 내용이 많은 편이다. 中晚唐 시기 문인이 幕府에 있는 이들과 교류하는 것이 관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흔히 생각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sup>5)</sup> 趙嘏의 과거시는 그의 과거응시와 낙방에 따

5) 宋代 洪邁는 『容齋隨筆·容齋續筆』 권1 「唐藩鎮幕府」에서 “唐代 士人들 중 처음으로 등과했거나 혹은 관직을 얻지 못한 자 중 다수는 여러 번진 막부의 선발을 통해 중용되었다.(唐世士人初登科或未仕者, 多以從諸藩府辟置爲重.)”라고 하였는데 이는 中晚唐 시기에 와서 더욱 성행하게 된 방법이었다. 당시 進士科에 급제했다는 것은 단지 관리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일 뿐이고 다시 吏部에서 주관하는 ‘關試’나 京師의 각 부서 또는 지방 각 도의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정식으로 임관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入幕’을 통해 관리가 되거나 추천받는 것 역시 과거를 통하는 것만큼 흔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른 감정서사의 기록인 동시에 晚唐 문인들이 관직과 연관하여 체험했던 생활과 의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된다. 趙嘏가 干謁을 했던 작품과 낙방 후 자신의 심경을 밝힌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晚唐 문인이 관료에 들기 위해 노력했던 열망과 비애감의 실마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干謁詩 창작을 통한 관직에의 갈망

趙嘏는 大和 7년(833) 과거응시와 낙방을 시작으로 몇 차례에 걸친 과거응시와 낙방, 막부에서의 幕吏 생활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가 幕府에 들어간 것은 생계를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고 과거 응시는 출세나 공명을 이루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다. 趙嘏는 과거를 준비하며 장안에 있는 동안 여러 상류층 인사들과 교제를 시도하였는데 “호방하고 시원시원하였으며 많은 대신들을 접촉하였고 관가를 출입하는 모습은 마치 친척들 같았다.(豪邁爽達, 多陪接卿相, 出入館閣, 如親屬然.)”(『唐才子傳』 권7)라는 기록을 통해 그가 폭 넓은 처신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작품을 보면 令狐楚, 牛僧孺, 沈傳師, 王起, 李德裕, 李珣 등 여러 인사들과 교제한 내용이 나오므로 『唐才子傳』의 기록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趙嘏는 여러 권세가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관직에 대한 소망을 표출하였을 것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이 干謁詩라 할 수 있다.

趙嘏는 武宗 會昌 4년(844)에 결국 進士에 급제했는데 그 전에는 각지를 유랑하다 幕府에 신세를 기탁하거나 長安에서 약 8년간 과거를 준비하는 등 힘든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특히 大和 초년에 浙東에 있는 元鑣의 막부를 거쳐 沈傳師의 幕府로 들어갔던 기간은 ‘入幕’을 위한 干謁詩를 많이 쓴 시기였다. 湖南觀察使 沈傳師에게 「西峰卽事獻沈大夫」를 통해 한미한 출신에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신세를 호소하기도 하였고, 「座上獻元相公」를 통해 元鑣에게 구직의 뜻을 비추기도 하였다. 大和 7년에 낙제한 이후에는 「下第寄宣城幕中諸公」을 통해 幕僚들이 자신을 추천해주기를 희망하기도 하였고, 「十無

詩寄桂府楊中丞」十首를 통해 桂林觀察使 楊漢公에게 干謁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開成 4년에 趙嘏가 揚州에 있을 때는 浙西觀察使, 西川節度使, 檢校尙書僕射를 지냈던 李德裕에게 「獻淮南李僕射」시를 바침으로써 자신을 천거해 줄 것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창작된 여러 편의 干謁詩는 주로 趙嘏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밝히면서 관직을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다소 상이한 내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長安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면서 간알하던 시기에는 나름대로의 포부와 의욕을 펼치며 자신의 문재를 알아주기 원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고, 낙제한 후에 쓴 干謁詩에서는 고독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지음을 찾는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幕府에서 천거해줄기를 바랄 때에는 겸손한 태도로 향후 은혜에 보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趙嘏는 干謁詩를 보면 상대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면도 있지만 간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의기소침해져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찍이 각지를 유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던 시기에는 스스로를 ‘詩家才子’, ‘酒家仙’ 등으로 부르며 호기를 부렸지만 과거에 낙방하고 막부를 떠도는 서글픈 현실 속에 있게 되면서는 점차 ‘賤夫’, ‘野人’ 등의 호칭으로 폄하하여 부르는 등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sup>6)</sup> 이러한 면모는 趙嘏 자신이 무력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현상일수도 있지만 晚唐을 살아가는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대적 한계상황과도 연관이 있다.<sup>7)</sup> 따

6) 趙嘏는 「答友人」(친구에게 답함)에서 스스로를 “시 짓는 재자이며 술 마시는 신선된 이, 환유의 신세로 일찍이 호숫가에 의지하였네.(詩家才子酒家仙, 遊宦曾依積水邊.)”라고 소개한 바 있는데, 십년 동안을 객지로 떠돌며 자신의 회한을 밝힌 「抒懷上歙州盧中丞宣州杜侍郎」(회포를 펼쳐 盧中丞과 宣州 杜侍郎에게 올림)에서는 “홀로 천한 이 되어 격한 감정을 품어보니, 십년 동안 두 곳에서 은혜 입었음을 알게 됩니다.(獨有賤夫懷感激, 十年兩地負恩知.)”라고 하여 ‘賤夫’로 지칭하였고, 「江亭晚望」(강가 정자에서 저물녘에 바라보며)에서는 “가을 객사의 연못 정자에는 연잎이 시들고, 야인 집 울타리는 쇠락하는데 콩 꽃이 처음 피어있네.(秋館池亭荷葉歇, 野人籬落豆花初.)”라 하여 ‘野人’으로 폄하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 비교된다.

7) 莎日娜는 「論唐代干謁詩展現的文人心態」(語文學刊, 2014.)에서 “唐代是干謁文學發展的輝煌時期, 這一時期的文人志士怀着對仕途的滿腔熱忱, 積極進取、謀求出路, 渴望得到伯樂的

라서 趙嘏가 쓴 干謁詩의 내용이나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관직을 열망했던 晚唐 문인의 시도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趙嘏가 쓴 몇몇 干謁詩를 예거하여 심리적 흐름과 연관된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趙嘏가 초기에 쓴 干謁詩를 보면 천거를 소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합당한 문재를 지니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가급적 밝고 희망적인 단어를 활용하려고 하였고 干謁을 하는 중에도 패기와 열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趙嘏가 令狐絢<sup>8)</sup>를 칭찬하며 문안을 올린 다음 시를 보면 은근히 자신의 문재를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담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上令狐相公」(令狐 相公에게 올림)

鶚在卿雲冰在壺 상서로운 구름 위 물수리 새는 옥항아리 속 얼음 같고  
 代天才業奉訐謔 천자를 대신하는 재주와 공업으로 큰 뜻을 떠받드네  
 榮同伊陟傳朱戶 그 영화로운 모습은 商 湯王 때 伊陟가 伊尹을 이은 것 같고  
 秀比王商入畫圖 빼어난 모습 漢 成帝 때 승상 王商을 그려낸 듯 합니다  
 昨夜星辰回劍履 지난 밤 별은 그대의 검과 신발 위로 배회했고  
 前年風月滿江湖 그 전 해부터 바람과 달은 강호에 그득했습니다  
 不知機務時多暇 근무하시는 중에 얼마나 틈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猶許詩家屬和無 그래도 시인의 창화를 허락하실런지요?

援引, 效力國家, 尤其是在盛唐, 國力的强大, 政治的穩定使得這種積極的精神尤為明顯. 然而經歷了安史之亂的中唐文人, 進取中又帶有一些對現實的正視, 更加冷靜理智, 因此文人在創作心態上也表現出區別於盛唐的多種心態.”라고 하여 盛唐처럼 국력이 강대한 시기에는 문인들이 적극적인 기운을 발휘하였지만 安史亂 이후 맛보게 된 냉정한 현실 앞에서 문인들은 결국 盛唐과 다른 침울함과 다양한 심리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8) 令狐絢(795-879)은 京兆 華原(현 陝西 耀縣)人이고 字는 子直이다. 太尉 令狐楚의 아들로써 성품은 나약했으나 문학에 정통했다. 唐 文宗 太和 4년(830)에 進士급제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弘文館校書郎、左拾遺、左補闕、戶部員外郎、右司郎中 등을 역임했다.

令狐綯를 ‘물수리 새(鶚)’로 비유하면서 ‘물수리 새가 상서로운 구름 위에 있다(鶚在卿雲)’라는 표현을 통해 令狐綯가 국가의 상서로운 기운을 대변하는 인물이며 옥항아리 속 얼음 같은 맑은 인품을 지녔다고 하였다. 令狐綯의 지위와 인품, 조정에서 하는 일 등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함연과 경연에서는 商 湯王 때 伊陟가 伊尹을 이은 것처럼 令狐綯가 令狐楚를 이어가며 영광스러운 직위에 있는 것과 하늘의 별이 令狐綯의 검과 신발 위로 배회하는 것처럼 위세가 대단하다는 표현을 가하였다.<sup>9)</sup> 典故를 통해 상대를 높이는 수법을 발휘한 것이며 동시에 은연중에 자신의 文才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까지 반영한 부분이다.

趙嘏는 벼슬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적극적인 표현도 불사하였다. 盧端公에게 “이 몸은 강 언덕의 버드나무와 같아, 그저 차가운 가지가 변하기만을 기다린다네.(此身同岸柳, 只待變寒枝.)”(「歲暮江軒寄盧端公」)라고 하여 봄을 맞은 강가의 버드나무처럼 자신의 처지가 변하기를 직설적으로 피력한 것이 예이다. 그가 李珣에게 쓴 다음 작품에서도 적극적인 표현을 가한 것이 눈에 띈다.

「回於道中寄舒州李珣相公」(돌아오는 도중 舒州의 李珣 相公에게 부치는 시)  
都無鄙吝隔塵埃 그대는 인색함도 전혀 없고 세속과도 거리를 두어  
昨日丘門避席來 어제는 공자의 문하에서 자리를 피해 왔습니다

9) ‘伊陟’은 商 湯王의 재상 伊尹의 아들로서 爲帝 大戊의 재상을 지낸 인물이다. ‘傳朱戶’를 통해 令狐綯가 令狐楚의 뒤를 이어 재상이 된 것을 비유하였다. 이어 漢 成帝 때 丞相 王商이 ‘칼과 신발을 신고 전에 오름(劍履上殿)’ 典故를 활용하였으니 ‘劍履上殿’는 황제 앞에서 거리낄 것이 행동하는 위세를 의미한다. 『三國志·曹眞傳』: “明帝가 즉위하자 曹眞은 邵陵侯에 봉해졌다가 大將軍으로 옮겨졌다. 4년 후 낙양에 왕조를 세웠을 때 大司馬로 이직하였는데 검과 신발을 하사하여 전에 오르도록 하였으며 조정에 들 때에도 바삐 걷지 않았다.(明帝即位, 進封邵陵侯, 遷大將軍. 四年, 朝洛陽, 遷大司馬, 賜劍履上殿, 入朝不趨.)”, 『史記·蕭相國世家』: “그리하여 蕭何를 첫 번째 재상으로 명하였고, 검과 신발을 하사하여 전에 오르도록 하였으며 조정에 들 때에도 바삐 걷지 않았다.(於是乃令何第一, 賜帶劍履上殿, 入朝不趨.” 등에서 전고와 연관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靜語乍臨清廟瑟 그대의 고요한 말투는 언뜻 清廟에서 울리는 거문고와도 같고  
 披風如在九層臺 구층탑에서 맞이하는 시원한 바람과도 같네  
 幾煩命妓浮溪櫂 종종 기녀 같은 운명에 번뇌하며 개울 위 배 띄우고 노 저  
 었으나  
 再許論詩註酒杯 다시 시를 논하고 술의 의미를 밝혀볼 수 있기를 바라보네  
 從此微塵知感戀 이제부터 작은 티끌에도 애착을 느끼며  
 七眞臺上望三臺 七眞臺 위에서 三臺를 바라보려 한다네

李珣의 인품과 처세를 먼저 칭찬한 후 그의 말투와 기품을 ‘清廟의 거문고’, ‘높은 곳에서 맞이하는 시원한 바람’ 등에 비유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기녀(妓)’에 비유하고 정치 없이 떠도는 배처럼 기약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폄하하여 묘사하였다. 시어 중에 나오는 ‘塵’은 본래 ‘속세’ 혹은 ‘속세의 일’ 등을 의미하는 내용이나 이 시에서는 ‘微塵’이라 표현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지칭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sup>10)</sup> 다시 문장을 짓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는 뜻을 내포한 ‘再許’와 궁궐의 보직을 의미하는 ‘三臺’<sup>11)</sup>를 통해 관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보다 직설적으로 피력한 것이 눈길을 끈다.

干謁詩는 타인에게 내 의중을 전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작품인데

10) 趙嘏 科舉詩에는 ‘塵’자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 의미 역시 다양한 편이다. “들리는 곳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먼지만 시루에 그득하네.(聽處無人見, 塵埃滿甌生.)”(「風蟬」)에 나오는 ‘塵’은 가난과 비루함을 의미하고, “삼년 땅을 밟고 다니니 옷은 다 헤어지고, 그저 장안만 보일 뿐 봄은 보이지 않네.(三年踏盡化衣塵, 只見長安不見春.)”(「寄歸」)에서의 ‘塵’은 여정의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의미하며, “근심은 홀로 돌아가는 길 찾을 때 생겨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걸음을 옮기고 있구나.(愁是獨尋歸路去, 人間步步是塵埃.)”(「早出洞仙觀」)에서의 ‘塵’은 인간세상을 의미한다. 한편 위 시 구절 “從此微塵知感戀, 七眞臺上望三臺.”에서의 ‘塵’은 자신의 신분이 미미하여 부유하는 먼지와도 같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1) ‘三臺’는 중앙의 尙書省, 御史臺, 司憲府 등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漢代에 尙書를 中臺, 御史를 憲臺, 謁者를 外臺라 하고 총칭하여 ‘三臺’라 하였다. 『後漢書』卷74 「袁紹傳」 “三臺를 소집하여 조정을 장악하여 다스렸다.(坐召三臺, 專制朝政.)”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각종 표현과 내용에 수식을 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전고를 활용하고 수식을 가하는 중에 가급적이면 희망적인 내용이나 표현까지 가미하고자 했던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과거 준비와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趙嘏 干謁詩에는 점차 우수의 그림자가 짙게 스며들기 시작한다. 趙嘏는 會昌 4년(844)에 어렵게 進士에 급제했지만 吏部의 ‘關試’<sup>12)</sup>를 통과하지 못하여 7년 동안 본격적인 관리의 생활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하나의 관문을 넘었는데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 더욱 어렵고 답답했을 것이다. 이 기간 중에는 생계를 위해 幕府에서 幕吏 일이라도 맡기 원하는 뜻을 담아 간알시를 쓰기도 하였다. 桂府 楊中丞에게 쓴 10수에 달하는 「十無詩寄桂府楊中丞」이 그러한 배경 하에 지어진 작품인데 제4수, 제8수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十無詩寄桂府楊中丞」其四 (열 수의 無字 韻 시로 桂府의 楊中丞에게 드림) 제4수

日暮江邊一小儒 해 질녘 강변에 있는 한 명 힘없는 유생  
空憐未有白髭須 아직 흰 수염 나지 않은 것만 부질없이 아끼고 있네  
馬融已貴諸生老 馬融은 벌써 존귀해지고 그 제자들도 늙었는데  
猶自容窺絳帳無 아직도 스스로 비단 장막 들여다보기를 허용하지 않는가

자신을 해 질녘 강변에 있는 ‘小儒’라고 지칭하면서 고단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음을 은유하였다. 그 옛날 馬融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앞에서는 수업을

12) ‘關試’는 進士에 급제한 후 실제로 관직을 얻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었다. 明代 胡震亨은 『唐音癸籤』 권18 「話箋三」 ‘士科故實’條에서 “‘關試’는 吏部에서 치르는 시험이다. 進士가 합격 방을 통해 구해지게 된 후에 禮部和 吏部가 서로 연관을 맺기 시작하여 吏部에서 시험을 통해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여 春關을 제수하였으므로 이 시험을 ‘關試’라 부르게 되었다.(關試, 吏部試也. 進士放榜救下後, 禮部始關吏部, 吏部試判兩節, 授春關, 謂之關試.)”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며 뒤에서는 장막을 펼쳐놓고 여자들로 하여금 춤추게 했다는 고사<sup>13)</sup>를 활용한 후 “이제는 비단 장막을 들여다 볼 때도 되었지 않는가”라는 설문을 통해 자신이 楊中丞의 막부에 들어가기에 희망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자신에 대하여 겸손한 표현을 가하면서도 典故를 활용하는 才氣를 잃지 않고 있음이 발견된다.

「十無詩寄桂府楊中丞」其八 (열 수의 무자 운 시로 桂府의 楊中丞에게 드림) 제8수

孔融襟抱稱名儒 孔融은 자신이 지닌 포부로 名儒라는 칭송을 들었는데  
愛物憐才與世殊 사물을 사랑하고 인재를 아끼는 세상 다른 이와는 달랐네  
今日賓階忘姓字 오늘날 西階에 있는 객들의 이름은 잊었지만  
當時省記薦雄無 당시에 양웅을 추천했던 일만은 기억나지 않는가?

楊中丞을 建安七子 중 일인인 孔融에 비유하면서 그가 사물을 사랑하고 인재를 아끼는 성품을 지닌 이라는 칭찬을 가하였다. 오늘날에도 객들이 모이는 西階에는 많은 이들이 있겠지만 揚雄과 같이 뛰어난 재주를 지닌 자신이야말로 추천받기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sup>14)</sup> 「十無詩寄桂府楊中丞」

13) 『後漢書』「馬融傳」: “馬融은 재주가 훌륭하고 박식하여 못 서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늘 수천 명에 달하였다. …… 북과 거문고에 능하고 피리를 잘 불었으며 자신의 성정대로 살았고 유가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았다. 기거하는 집이나 그릇 옷 등에 사치품이 많았으며 늘 높은 곳에 앉아 낮은 비단 휘장을 치고는 앞에서는 생도들을 가르치며 뒤에서는 여러 여자들과 즐겼다.(馬融, 才高博洽, 爲世通儒, 教養諸生, 常有千數. …… 善鼓琴, 好吹笛, 達生任性, 不拘儒者之節. 居宇器服, 多存侈飾. 常坐高堂, 施絳紗帳, 前授生徒, 後列女樂.)”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14) 이 구절 역시 班固 『漢書』「揚雄傳」: “揚雄의 自序에서 이르기를, 처음에 揚雄의 나이 40여세에 蜀에서 京師에 놀러왔을 때 大司馬 車騎將軍 王音이 그의 문장의 뛰어난을 기이하게 여겨 그를 자기 문하의 사관으로 초청했고 揚雄을 천거하여 待詔가 되게 하였더니 세월이 지나 「羽獵賦」를 지어 올렸다. 除爲郎, 給事 黃門, 王莽, 劉歆과 함께 하였다.(雄之自序云爾. 初, 雄年四十餘, 自蜀來至游京師, 大司馬車騎將軍王音奇其文雅, 召以爲門下史, 荐雄待詔, 歲餘, 奏「羽獵賦」, 除爲郎, 給事黃門, 與王莽, 劉歆并).”라는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10수는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無’자를 붙여 놓았는데 이는 반문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고 자신의 文才를 표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법이라 할 수 있다.

국력이 팽창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初·盛唐代의 문인들은 干謁詩에 열정과 재기를 활발히 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趙嘏가 활동하던 晚唐代는 국력이 쇠미해져가고 官路를 향한 문이 협소해진 상황이라 전대에 비해 비애감, 실망감, 괴로움, 자기비하 등의 감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初·盛唐代보다 간알시의 숫자가 많아졌으나 그 내용은 좀 더 침울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 연유인 것이다. 干謁詩를 씀에 있어 初·盛唐代 문인들이 열정을 갖고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것에 힘을 들였다면 中·晚唐代 문인들은 좀 더 냉정한 시각을 발휘하며 자신들이 겪는 괴로움이나 고민, 회포, 절망감 등을 써내려갔는데 그 이면에 담긴 간절함은 이전보다 더욱 커진 상황이었다.<sup>15)</sup> 특히 관직에 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의 상실은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趙嘏의 干謁詩에는 자기 비하와 겸양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을 뿐 아니라 간알의 대상에게 ‘報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내용도 자주 등장하게 된다.<sup>16)</sup> 그만큼 절박함

15) 初·盛唐代 문인들이 쓴 干謁詩를 보면 재기발랄한 문재를 발휘하며 밝고 희망에 찬 표현을 가하거나 자신의 장엄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상대의 시선을 끄는 것에 힘을 들인 것이 발견된다. 이에 비해 中·晚唐代로 오며 干謁詩가 많이 창작됨에 따라 干謁詩는 점차 ‘일정한 틀’을 형성하게 된다. 대부분 干謁하는 대상의 인품이나 공덕에 대해 칭송과 찬미를 가한 후에 자신이 현재 처한 어려움, 관직에 대한 의지, 발탁을 희망하는 연유나 목적 등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孟郊의 「上河陽李大夫」, 張籍의 「沙堤行·望裴相公」, 章孝標의 「蜀中上王尚書」 등의 작품은 모두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中·晚唐代에 쓰여진 干謁詩에는 자기비하와 겸양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도 初·盛唐代의 干謁詩와 비교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16) 趙嘏는 干謁詩를 여러 편 쓸수록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고 ‘報恩’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을 자주 “만약 은혜 갚는 일을 고심한다면, 감히 봄을 노래하며 술잔을 추억하지 못할지니.(苦心若是酬恩事, 不敢吟春憶酒杯).”(「越中寺居寄上主人」), “이듬해까지 햇살 비추니 봄빛은 여전하고, 은혜에 감동한 천 호의 집마다 눈물 흘린 흔적 많아라.(照物二年春色在, 感恩千室淚痕多).”(「山陽韋中垂罷郡因獻」) 같은 시에서 ‘恩’자를 활용하여 간알을 시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커져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淮南의 李僕射에게 바친 다음 시에도 ‘舊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趙嘏가 느꼈던 절박한 심정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獻淮南李僕射」(淮南의 李僕射에게 드림)

早年曾渴富民侯 일찍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관리가 되길 갈망했는데  
 今日難堪失鶴羞 오늘날 난감하게도 낙제하게 되었네  
 新諾似山無力負 새로운 기약은 산과도 같아 담당할 힘이 없고  
 舊恩如水滿身流 옛 은혜는 물 같이 온 몸에 그득 흐르네  
 馬嘶紅葉蕭蕭晚 말 우는 곳 단풍이 저있는데 쓸쓸히 저물어가고  
 日照長江泥艷秋 햇살은 장강을 비추는데 진흙이 곱게 물든 가을이구나  
 功德萬重知不惜 그대 공덕 만 겹처럼 중한 것 충분히 알고 있으니  
 一言拋得百生愁 그대의 한 마디 없다면 온갖 근심이 생겨날 듯

일찍이 李僕射와 알고 지냈던 추억을 행간에서 환기시키면서 현재 자신이 낙제한 신세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관직에 오르기 원하는 속내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했는데 ‘새로운 기약(과거합격)’은 산처럼 큰 중압감으로 느껴지니 차라리 지인이 나를 알아주고 천거해주면 훨씬 더 순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담은 부분이다. ‘舊情’이라는 표현보다 ‘舊恩’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겸양의 모습을 연출하였고 상대방에게 더 좋은 인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미연에서는 李僕射의 한 마디가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로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신의 소원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시도를 가한 것이 발견된다.

唐代 문인들이 권문세가의 자리를 흠모하면서 자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편으로 생각한 것은 ‘荐舉’, ‘徵辟’, ‘科舉’ 등의 여러 방법인데 이 중 대부분의 문인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방법은 과거응시였다. 그러나 晚唐으로 들면서 국력이 쇠퇴해가고 정치가 일부 권신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해지

자 과거제도만으로는 “兼濟天下”의 이상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관직에서 실의한 문인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자신을 낮추며 상대에게 간청하는 내용을 담은 干謁詩의 창작은 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게 하는 비극적 행위이기도 하였으나 혼탁하고 부패한 시대적 상황은 이 분야의 창작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게 하였다. 初·盛唐의 문인들과 비교하여 中·晚唐의 문인들은 훨씬 좁은 입지와 선택권 속에서 살아갔다 할 것이다. 따라서 趙嘏를 위시하여 孟郊, 李商隱, 許棠, 羅隱, 羅鄴, 杜荀鶴, 鄭谷, 韓偓 등 수많은 中晚唐 문인들이 과거에 누차 낙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창작해낸 과거시는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한계상황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관직을 향한 열망의 정도에 따라 干謁詩의 내용과 편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趙嘏가 자신의 전체 시 259수 가운데 약 20수에 달하는 과거 관련 시가를 썼던 趙嘏의 경우는 그 간절함이 한층 컸던 경우라 할 수 있다.

## 2. 落第詩에 담은 비애감과 회한

전술한 바와 같이 趙嘏는 文宗 太和 元年(828)부터 浙東 元稹의 幕府와 宣城 沈傳師의 幕府 등을 전전하다 大和 7년(833)에 進士科에 응시한 바 있다. 결과는 낙방이었는데 이로 인해 관직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비애감을 처음 맛보게 된다. 그 후 長安에서 과거를 준비하거나 幕府를 전전하는 삶을 반복하다가 會昌 3년(843)에 본 과거에서 또 다시 낙방하였고 이듬해인 會昌 4년(844)에 결국 進士에 급제하게 된다. 최초 응시에서 진사과 급제, 다시 吏部에서 주관하는 ‘關試’에 합격하여 大中 2년(848)에 渭南尉로 임직하기까지 趙嘏는 수많은 좌절과 슬픔의 시간을 겪었던 것이다. 趙嘏의 시가에는 ‘失意’, ‘愁’, ‘恨’, ‘惆悵’, ‘寂寞’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데<sup>17)</sup> 많은 경우 객지를 떠

17)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趙嘏의 전체 시가에서 ‘失意’는 4회, ‘愁’는 40회, ‘恨’은 20회, ‘惆悵’은 8회, ‘寂寞’은 4회 각각 등장하는데 많은 경우 관직에서 실의하거나 진로로

도는 신세에 대한 한탄과 관직에서 득의하지 못한 비애감을 표출할 때 활용되었다. 관직을 향한 열망과 실패로 인한 비애감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과거에서 낙방한 후의 심경을 서술한 시가를 몇 수 예거하여 과거와 연관하여 느낀 비애감과 회한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趙嘏가 大和 7년(833) 처음 낙방한 이후 막막한 좌절감 속에 처하게 된 심경을 서술한 작품 두 수를 차례로 살펴본다.<sup>18)</sup>

「下第後歸永樂里自題二首」其一 (낙제한 뒤 永樂里로 돌아와 쓴 시 두 수)

제1수

無地無媒只一身 마음 붙일 곳도 인연도 없이 오로지 홀몸인데  
歸來空拂滿牀塵 돌아오니 바람만이 먼지 그득한 침상을 부질없이 쓸어가네  
尊前盡日誰相對 술동이 앞에서 종일 누가 나를 상대하라  
唯有南山似故人 오로지 남산만 있어 옛 친구 같을 뿐

「下第後歸永樂里自題二首」其二 (낙제한 뒤 永樂里로 돌아와 쓴 시 두 수)

제2수

玄發侵愁忽似翁 검은 머리카락에 수심이 엄습해 홀연 노인 같아졌으니  
煖塵寒袖共東風 따듯한 날씨이나 아직 차가운 소매에 봄바람만 함께 하네  
公卿門戶不知處 공경의 문호가 그 어디 인지 알지 못하여  
立馬九衢春影中 사방 향한 길에 말 세워놓고 봄 환영 중에 있나니

낙제한 후 기거하던 永樂里로 돌아오나 아무도 반기는 이 없이 바람만 날리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제1수에서 ‘마음 붙일 곳도 인연도 없다(無地無

인한 근심을 표현하는 경우에 활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18) 譚優學은 『唐詩人行年考』(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1.) 제295쪽에서 그가 처음 과거 응시한 해와 시제 중에 나오는 ‘永樂里’ 등의 지명을 연관하여 “이 시는 大和 7년에 쓴 것으로 趙嘏가 처음 낙제했을 때 쓴 시이다.(這首詩作于大和七年, 正是趙嘏第一次落第時的詩.)”라는 고증을 가한 바 있다.

媒)’는 표현은 낙방한 자신이 느끼는 단절된 의식을 드러낸 것이며, 제2수에서 ‘따듯한 날씨 속 차가운 소매(煖塵寒袖)’는 비록 날씨는 따뜻해지지만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추운 상태임을 은유한 것이다. 망연자실한 현실과 아득한 미래 속에 의지할 이 없지만 南山 만은 변하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의 출로는 막막하고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다. 제2수 결구의 ‘春影’이라는 단어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인의 막막함과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아득한 심정을 다층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낙방한 직후에 쓴 시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후회, 회한 등을 기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기대했던 합격이 서글픈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곧이어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자괴감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낙제한 후 자신의 슬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회한을 표출하고 있는 다음 작품을 보자.

「下第」(낙제하여)

南溪抱瓮客 남쪽 시냇가에서 술 향아리 끼고 있는 객이 되어  
失意自懷羞 실의한 후 스스로 마음 부끄럽다  
晚路誰携手 해 저무는 길 그 누구와 손잡고 걸을꼬  
殘春自白頭 사그라지는 이 봄에 절로 백발이 나누나

자신을 ‘술 향아리 끼고 있는 객(抱瓮客)’으로 표현하며 급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처지를 스스로 비하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自’자가 나오는데 제2구의 ‘自’자는 낙제 후 내면에서 느끼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감정을 드러낸 것이고, 제4구의 ‘自’자는 외부에서 바라본 본인의 머리털 모습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잡다(携手)’라는 표현을 통해 이 침통한 순간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냈으나 고독하고 외로운 감정을 떨쳐버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느껴

진다.

낙제한 심정을 知友에게 전한 다음 작품에서도 자신의 슬픔과 비애감을 표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 보인다.

「叙事獻同州侍御三首」其一 (자신의 일을 기록하여 同州侍御에게 바치는 시 삼수) 제1수

靑雲席中羅襪塵 청운이 이는 곳에서 노닐고자 했더니  
白首江上吟詩人 이제는 흰머리 되어 강가에서 시 읊는 이 되어있네  
登龍不及三千士 삼천 명이나 되는 선비가 모두 등용될 수는 없었지만  
虛度膺門二十春 급제의 헛된 꿈을 꾸며 스무 해를 보냈나니

일찍이 청운의 뜻을 품고 관직에 드는 꿈을 꾸었던만<sup>19)</sup> 어느덧 낙방의 시름을 안은 채 강가에서 시 읊는 서글픈 신세가 되어 있다. 삼천 명이나 되는 선비가 진사과에 응시하였으니 낙방은 어찌면 필연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국에서 “과거를 위해 스무 해를 보냈다”<sup>20)</sup>고 하여 ‘二十春’이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실제로 趙嘏가 관직을 위해 노력한 시간은 10년 남짓하므로 그만큼 오랜 기간 마음을 줄이며 준비한 것을 은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 낙방한 趙嘏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회한을 전달하면서 공감의 유도와 슬픔의 해소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宣城 幕府의 지인들에게 보낸 다음

19) 首句의 ‘靑雲’은 孔稚圭, 『北山移文』의 “흰 구름을 건너니 바야흐로 깨끗해져, 푸른 구름을 기둥으로 세우고 곧바로 올라가네.(度白雲而方潔, 幹靑雲而直上.)”에서 연유한 典故 ‘靑雲直上’ 즉 ‘지위가 올라가거나 관운이 형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羅襪塵’은 曹植 『洛神賦』의 “물결을 밟아 사뿐히 걸으니 버선 끝에 먼지가 일고(陵波微步, 羅襪生塵.)”에서 연유한 것으로 ‘교외로 나가 노닐다.(郊遊)’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다.

20) ‘登龍’, ‘膺門’ 등은 東漢의 名士 李膺의 가문에 초대받는 것을 ‘登龍’이라 한 것에서 연유된 표현이다. 『世說新語』 「德行」 편에 “李膺은 풍격이 빼어나고 단정했다. … 후에 선비가 된 이가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오르는 것을 모두 등용문에 드는 것으로 여겼다.(李膺風格秀整, … … 後進之士, 有升其堂者, 皆以爲登龍門.)”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시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登龍’이라 이르고 있다.

작품을 보면 낙방에 따른 회한과 슬픔을 투영하면서 감정의 해소를 갈망한 흔적이 보인다.

「下第寄宣城幕中諸公」(낙제한 후 宣城 幕府의 지인들에게 보내는 시)  
 一醉曾將萬事齊 한 바탕 취하면 만사를 모두 평정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았  
 지만  
 暫陪歡去便如泥 잠시 누렸던 즐거움이 사라지면 결국은 진창과 같아진다  
 黃花李白墓前路 이백의 무덤 앞길에는 노란 꽃이 피어 있고  
 碧浪桓彝宅後溪 桓彝 집 뒤 개울에는 푸른 물결이 일렁인다  
 九月霜中隨計吏 구월에 서리 내리는 중에 計吏를 따라 일하기도 했고  
 十年江上灌春畦 십 년 동안 강에서 밭두둑에 봄 물 대기도 했었네  
 莫言春盡不惆悵 봄이 다 가도 슬퍼말라고 말하지 말게나  
 自有閑眠到日西 한가로운 꿈을 꾸다보면 어느덧 해가 서산에 이르리니

술로써 근심을 씻기 위해 한 바탕 취해보지만 깨고 나면 결국 마음은 진창 처럼 어지러워진다. 술 취한 눈으로 이백의 무덤을 보면서 그 옛날 이백이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살던 기억을 떠올리려 하고, 桓彝<sup>21)</sup> 집 뒤의 개울을 보면서 시름을 씻어버리고자 한다. 자신의 능력은 비록李白에 못 미치지만 십 년 동안 막부에서 일하며 힘들게 공부한 이력을 지니고 있으니 낙방에 따른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미연에서는 좋은 시절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며 서글픈 중에도 마음을 추스르고자 노력하는 면모를 보이고자 하였다.

낙방한 후 李中丞에게 올린 다음 시에서도 낙방으로 인한 막막한 심정과 회한을 투영하면서 감정의 전달과 공감의 유도를 도모하고 있다.

21) 桓彝(276-328)는 龍亢(安徽 懷遠縣)人으로 東晉시대에 宣城太守를 지낸 인물이다. 그가 宣城太守로 있던 成帝 咸和 2年(327)에 蘇峻과 祖約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蘇峻之亂)에 맞서 지역을 지키다 순절하였다. 『晉書』 「列傳」 四十四에 桓彝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下第後上李中丞」(낙방한 후 李中丞에게 올린 시)  
 落第逢人慟哭初 낙방한 후 사람을 만나니 통곡부터 나오네  
 平生志業欲何如 평생의 의지와 학업이었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鬢毛灑盡一枝桂 귀밑머리 다하도록 과거급제 바라보고  
 淚血滴來千里書 과거 시험지에는 피눈물 방울이 맺혀 있네  
 谷外風高摧羽翮 골짜기 밖에는 바람이 높아 날갯짓을 가로막는데  
 江邊春在憶樵漁 강가에 봄이 펼쳐지니 나무꾼과 어부 생각이 나네  
 唯應感激知恩地 그저 내 처지가 은혜로운 것을 알고 감격해야 되겠지만  
 不待功成死有餘 공업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한이 남으리니

낙방한 후 사람은 만나면 통곡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였다. 과거는 자신에게도 평생의 의지와 학업이었지만 과거시험장에 전해 내려오는 눈물의 역사 역시 통렬한 것임을 ‘一枝桂’<sup>22)</sup>, ‘淚血滴’ 등의 시어를 통해 강조하였다. 과거급제하기가 어려운 것이나 과거 실패 후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신만의 상황이 아님을 상기시킨 대목이다. ‘慟哭’, ‘淚血’ 등의 시어에서 비통한 시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미연 ‘死有餘’에서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또한 살필 수 있다.

22) ‘一枝’는 趙嘏의 科擧詩에 자주 출현하는 시어로서 ‘及第’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一枝’는 唐詩에서 과거급제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折桂’와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桂折’, ‘擢桂’, ‘蟾桂’, ‘芳桂’, ‘手中有桂’ 등의 용어로도 쓰인다. 『晉書』 권52 「郤詵傳」에 “郤詵이 대책을 올리면서 議郎을 배알하게 되었다. … 후에 雍州刺史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무제가 동당에서 모임을 갖고 전송하며 郤詵에게 묻기를 ‘경은 스스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하자 郤詵이 대답하길 ‘신이 현량의 대책을 들자면 천하의 제일이요 계림의 한 가지와도 같고 곤산의 편옥과도 같습니다.(郤對策上第, 拜議郎. …… 累遷雍州刺史. 武帝于東堂會送, 問詵曰: ‘卿自以爲何如?’ 詵對曰: ‘臣擧賢良對策, 爲天下第一, 猶桂林之一枝, 昆山之片玉.’”라는 구절에서 ‘折桂’가 ‘桂林之一枝’의 의미와 연관되게 되었다. 趙嘏는 다른 시에서도 ‘과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折桂’ 대신에 ‘一枝’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天上高高月桂叢, 分明三十一枝風.”(「宴集必資清談書此奉賀」), “八閩已聞傳姓字, 一枝何足計行藏.”(「廣陵答崔琛」) 등을 예거할 수 있다.

낙방한 후 쓴 趙嘏의 낙제시를 보면 스스로의 자괴감과 슬픔에 갇혀 처지를 한탄한 작품과 타인에게 비통한 마음을 전달하며 감정의 공유와 위안을 도모한 작품이 많다. 이와 함께 자연을 찾아 스스로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도 여러 편 보인다.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타인과 소통하며 슬픔을 객관화하고 공감을 모색한 것에 이어 산수자연을 찾는 것으로 감정해소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정해소가 반드시 “개인-타자-자연”의 방향성을 갖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신과 타자, 객관화된 사물 등 다양한 대상에 비추어 자기감정을 토로하고 해소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방 정경을 바라보면서 쓴 다음 작품을 보면 낙방에 따른 비애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비교적 객관화된 감정서술을 지향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落第」(낙제)

九陌初晴處處春  사방 길이 처음 환하게 개여 곳곳마다 봄이니  
不能回避看花塵  꽃과 세상을 바라다보지 않을 수가 없구나  
由來得喪非吾事  이처럼 슬픔을 당하는 일이 내 일이 안 되려면  
本是釣魚船上人  본래부터 고기 낚는 뱃사람이었으면 될 것을

자신의 마음은 아득하지만 세상은 밝은 봄을 맞이하고 있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지만 주변 풍경에서 눈을 떼지는 않고 있다. 주변이 환하게 보일수록 마음 또한 객관적인 의식을 회복하는 느낌이다. 처음부터 낚시꾼의 삶을 살았으면 낙방의 슬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타인의 삶을 생각해봄으로써 스스로의 위안을 도모하고 감정의 객관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가하는 있는 부분이다.

과거시험 후 낙방을 예감하게 되자 홀로 마음을 달래기 위해 曲江을 찾아 쓴 시도 있다.

「出試日獨遊曲江」(시험 본 날 홀로 곡강에서 노닐며)  
 江莎漸暎花邊綠 강가의 향부자 점차 환해지며 꽃 주위는 푸르러지는데  
 樓日自開池上春 누각 위의 해는 환하게 비치고 못 위에는 봄이 한창이로다  
 雙鶴繞空來又去 짝 이룬 학들은 허공을 돌며 왔다갔다 하는데  
 不知臨水有愁人 물가에서 근심에 쌓인 이를 알아주는 이 없구나

曲江은 유명한 유람지이며 진사에 급제한 이들을 축하하는 ‘曲江宴’을 여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큰 곳이다. 봄 되어 향부자가 피어나 푸르름을 더해 가는 중에 환한 햇살 속에 펼쳐진 누대와 호수는 시인의 마음을 까담모를 슬픔으로 인도한다. 여기에 짝을 지어 자유롭게 허공을 배회하는 ‘雙鶴’들은 과거에 합격하여 뜻을 이룬 서생들을 연상시킨다. 자신의 서글픈 마음을 타인이 알아줄리 없다는 한탄을 ‘不知’ 표현 속에 담음으로써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출하고자 한 시도가 느껴진다.

趙嘏는 낙제시를 씌우으로써 실패로 인한 슬픔과 스스로 느낀 고독함을 표출하는 것을 일차적인 내용으로 하였다. 낙제시를 통해 자신의 자괴감을 지우들에게 전하거나 타인의 낙방을 위로하며 심리적 공감과 감정의 해소를 도모하기도 하였고 자연을 찾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슬픔의 객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관직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던 晚唐시대의 士人들에게 있어 과거급제는 숙명적인 과제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다가 실패하면 느끼게 되는 상실감과 자괴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약관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 막부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쌓은 체험이나 자신의 학문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다는 고독감,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짊어지는 후회와 회한 등은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대부분의 晚唐 문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이다. 趙嘏가 낙제시를 통해 실의한 심정을 읊은 모습은 관직에 들기 어려운 환경에 있던 晚唐 문인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자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결어

趙嘏는 관직에 대한 집착이 커서 과거와 연관된 작품을 많이 남겼을 뿐 아니라 관직에 들지 못한 슬픔을 안고 강호를 전전하며 우수에 찬 작품도 다수 창작한 시인이었다. 넘치는 자신의 才氣를 관직추구를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한 만큼 그의 시가에 나타난 비애감이나 서글픈 정서는 과거낙방이나 오랜 관직추구과정과 맥락을 함께 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진다. 趙嘏는 여러 수의 干謁詩를 통해 자신의 염원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공을 들였다. 그가 쓴 干謁詩 작품은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알리고 文才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쓴 것이 많았는데 겸허한 자세로 지인의 추천이나 조언을 바라는 심정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각종 典故나 수사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실력을 과시한 부분도 많이 발견된다. 干謁詩에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것이나 지인들과의 우정이나 친분을 최대한 언급하며 관심을 끄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은 관직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반증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약 20여수에 달하는 落第詩 역시 趙嘏의 관직추구 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의 落第詩는 낙방에 따른 좌절감 표현, 스스로를 향한 위로의 모색, 자신의 사정을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얻게 되는 감정의 공유나 희석, 자연을 찾아 감정의 해소를 도모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는 낙제한 다른 친구에게 동병상련의 의식이나 위로를 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趙嘏가 관직에 들기를 갈망하거나 낙방에 따른 비감을 표현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느꼈던 비애감이나 자괴감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비단 趙嘏 일인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관직에 대한 갈망의 정도나 실패에 따른 좌절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동시대 대부분의 문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슬픔’의 하나라 할 수 있다. 趙嘏의 경우 干謁과 낙제에 따른 감정 표현이 비교적 상세하여 과거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깊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관직에 드는

것이 어려웠던 晩唐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헤쳐 나가  
기 위한 노력을 수행했던 결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79.
- 辛文房, 『唐才子傳』,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8.
- 傅璇琮, 『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0. 2.
- 宋 計有功 『唐詩紀事』上海古籍出版社 1987. 7.
-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上·中·下) 浙江教育出版社, 1995. 5.
- 許 總 『唐詩史』(上·下) 江蘇教育出版社, 1995. 3.
- 任海天 『晚唐詩風』, 黑龍江教育出版社, 1998. 3.
-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 莎日娜, 「论唐代干谒诗展现的文人心态」, 语文学刊, 2014.
- 張浩遜, 「唐代科舉詩論略」, 鐵道師院學報, 1998.
- 沈文凡, 钟静, 「赵嘏研究述评(1980-2005)」, 襄樊学院学报, 2007. 1.
- 许振·黄鹏·安丹丹, 「赵嘏诗歌的“江湖意象”解析」, 沈阳农业大学学报, 2010. 1.
- 李 丽, 「论赵嘏诗歌中的悲情意识」, 岱宗学刊, 2007. 9.

## Abstract

### A Study on the hopelessness and remorse in Zhao-Jia's poetry of imperial examinations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on the aspects of Zhao-Jia(趙嘏)'s 'Gwageo poem(科舉詩, the poetry of imperial examinations)'. Zhao-Jia(趙嘏) is one of the poets of Late Tang Dynasty. To enlarge the research on the hopelessness and remorse in Zhao-Jia(趙嘏)'s poems, I have noticed his 'Gwageo poem'. Zhao-Jia(趙嘏) is the poet who wrote the most many poetry when failed imperial examinations. His poetry work, which he wrote in connection with his pursuit of office, was used as a way to inform others about his situation and to show his literary talents. In his humble attitude, he recorded his feelings of seeking comfort and advice from his acquaintances. It is also found that the doctrine and rhetorical techniques are used to show off his skills. The main content of Zhao-Jia's poetry of imperial examinations is that the expression of his own sadness and frustration of failure, comfort for oneself, consciousness of consent for other friends who failed, and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others.

**Key words** : Zhao-Jia(趙嘏), personal sufferings, the poetry of Zhao-Jia(趙嘏), Late Tang Dynasty, the poetry of imperial examinations.

투 고 일 : 2018. 4. 10. / 심 사 일 : 2018. 4. 15.~ 2018. 5. 15. / 게재확정일 : 2018. 5. 20.